

# “정토로 가는 길 한 발 더 나셨네”

병자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다시다시했던 1996년 불교계는 유난히도 정토구현의 목소리를 높였던 해였다.

정월달, 김영삼대통령의 국군중앙교회 예배참석을 계기로 종교평등정책시정을 요구했다. 사찰환경 파괴의 심각성도 극에 달했다. 급기야 한해가 저물어가는 지난 11월에 전국의 3천여명의 스님이 모여 사찰환경 수호를 대내외에 공표했다. 이러한 불교계의 외침은 내부를 점령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자들의 피나는 수행과 염으로 얼룩진 자비 실천행은 계속됐다. 위로는 노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있었기에 올 한해 불교는 한국의 민족종교임을 증명했다.

파사현정의 기치를 내건 불교도들은 참으로 장했다.

해를 넘기기에 앞서 이들 장한 불자들의 모습을 되새겨 본다.  
(편집자 주)



## 고속철 경주도심우회 관철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이 경주도심을 우회하는 화천리노선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92년 6월 건교부기 경주도심을 통과하는 형산강 노선안을 제시한 이래 4년여에 걸친 노선논쟁이 마무리됐다. 그동안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총무원, 한국불교재가회의 등 불교계 32개 단체와 한국고고학회 등 35개 시민·사회·학술단체가 주축이 되어 도심통과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17만명의 도심통과반대 서명부를 첨부해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사진은 5월 22일 서울 종로공원에서 열린 도심통과 반대와 경주문화재 보존 촉구대회 모습.



**불교관계법 개정 추진** 불교관계법 개정안이 12월 11일 장각회소속의원 47명을 포함한 5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이 불교관계법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립법 농지법 등 3개 법안으로 △전통사찰보존 구역 신설 △사찰의 권리구제조항 신설 △자연공립 사유지 이용료 지급 △사찰의 농지취득권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국제 불교교류 팔목**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서울대회가 지난 9월 10~11일 양일간 워커히호텔에서 열리는데 이어 동국대가 10월 24~25일 양일간 개교 9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에서 잇따라 열린 국제불교대회는 세계속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 사찰환경훼손 결사반대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와 석굴암동성보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조계종은 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전국 본말사 주지들의대회를 11월 22일 조계사에서 3천여명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형되고 있는 사찰환경파괴는 정부의 무관심과 정책부재 행정당국의 무책임한 집행에 있다"고 지적하고 △불교관계법 개정 △사찰환경수호법 제정 △해인골프장 조성사업개발계획 백지화 △경주고속철도역사 사외관설치 등을 결의했다.



## YS정권 종교편향 '파문'

병자년이 열린 정월달 21일, 김영삼대통령이 국군중앙교회에서 예배보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방영됐다. 특정종교 편향 정책을 규탄하는 불교도들의 분노에 청와대가 사과했고 종교편향정책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 감은사 나원리 사리출현

경주 감은사지 3층석탑(동탑)과 나원리 5층석탑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99과와 사리구가 1천3백여년만에 나뉘었다. 조계종은 7월 11일 덕수궁문화재관리국에서 광고, 보신각을 거쳐 조계사까지 이운식을 갖고 한달간 일반에 공개했다. 감은사지, 나원리사리는 새로운 사리구를 제작 재봉인했다.



**대구불교방송 개국** 서울 부산 광주에 이어 불교대구방송이 11월 11일 개국했다. 주파수 94.5MHz 호출부호 HLD 출력 3kW로 대구 경북일대에 하루 21시간의 방송을 내보내게 됐다.



## 잇단 사찰방화

지난 5월 삼성암본원정사 화재사건 등 경북구 일대의 연쇄적인 방화사건 이후 11월 17일 쌍문동 법종사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사진은 본원정사 화재장면.



## 파라미타 창립

조계종 포교원은 금년을 '불교청소년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조계종은 불교 청소년 단체로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를 창립, 선재동자들의 마음을 마련했다. 파라미타는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우주야영장에서 캠프를 운영하는 등 미래불교의 희망으로 자리잡았다.



**중앙승가대 정규대 승격** 중앙승가대대학이 지난 79년 학원실태를 인가받은 이후 17년만인 12월 11일 교육부로부터 정규대학으로 인가를 받았다. 현재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를 개설중인 중앙승가대대학은 김포학사로 이전한후 추후 대학원 사회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 '97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1. 대학개설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님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성철큰스님의 백일법문(上下)을 부교재로 선정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10기생을 모집함.
- 2. 교과목 및 강사**

1년 교과목	연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적사상 삼보사상·법어사상·법회사상·회향사상	무엇장스님(천도교원장)·허경구교수(동국대)·서지석교수(동국대)·김영태교수(동국대)·오우성교수(동국대)·김희석교수(동국대)·양도스님(천도교원장)·민홍수교수(동국대)·권영준교수(동국대)·정복수교수(동국대)
2년 교과목	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경교사상·포교방법론·근대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사상론	홍익스님(승가대교수)·양보스님(동국대교수)·정명스님(승가대교수)·서문교수(동국대)·문정섭사상학연구원장·권재교수(동국대)·김병호교수(동국대)·보국교수(동국대)·최정수교수(동국대)·박종안상제위원장
-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원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인원 20명 통신학생 20명	불교를 적극 선행하고자 하는 자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증본 1통 반영합동사진 2매	99년 12월 25일 ~ 1월 7일 입학료 18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평주도요동 상주 4사 충무원 불교회관 1층	통신학생 지원가능하나 출석수강에 허가를 지닌 가능
- 4. 개강일시** 1997년 2월 1일(토) 오후 6시 (충무원 1층 불교회관)
-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732-1207) (우 110-170 서울 동로구 건지동 13번지)
  - 서울 : 보림각 (조계사앞) (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246-4321)
  - 대구 : 삼양불교서림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257-0161)
  - 광주 : 금강불교백화점 (671-0451)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 특전사항 : 상기과정을 졸업한 자는 포교사 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